

서건창, 짜릿한 역전 발판 '동점 2루타'

KIA, LG戰 5대4...NC에 반게임차 앞선 선두 수성

김선빈·최원준·김도영 '멀티히트'...시즌 10승째 신고 선발 이의리 통증 호소 자진강판·박민 부상 이송 '악재'



KIA 선발투수 이의리가 10일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2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짜릿한 대역전승으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KIA는 10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솔(SOL)뱅크 KBO리그 LG와의 홈 경기에서 서건창의 동점타와 상대 투수 보크에 힘입어 5-4로 역전승했다.

KIA는 10승째를 기록하며 이날 승리를 한 NC와 반 게임차로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회 팔꿈치 통증으로 자진 강판한 선발투수 이의리는 11이닝만 소화한 채 5피안타 4볼넷 1삼진 3실점으로 부진했다. 다만, 이의리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건국이 3이닝 1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고, 이준영과 곽도규, 장현식, 정상현, 정해영이 LG타선을 3안타 무실점으로 완벽 봉쇄해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타선에서는 총 10안타가 나온 가운데, 김선빈이 4타수 2안타 2타점의 맹

타를 휘둘렀다. 최원준(4타수 2안타 1타점)과 김도영(4타수 2안타)도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8회말 대타로 나온 서건창은 극적인 동점 2루타로 승리 주역이 됐다.

최다 실책을 기록하고 있는 KIA는 이날도 실책으로 선취점을 내주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갔다.

KIA가 2회 선제점을 내줬다. 2루타와 번트 안타를 허용한 무사 1, 3루에서 이의리가 1루 견제 송구 실책을 범하며 1실점했다. 이어 1타점 적시타와 포수 3루 도루 송구 실책까지 내줘 스코어 0-3으로 끌려갔다.

KIA가 3회 반격에 나서며 점수차를 좁혀나갔다.

김도영의 내야 안타와 도루로 만든 2사 1루에서 김선빈이 1타점 적시타로 연결했다.

4회에는 상대 투수 번트 실책과 희생번트에 이은 최원준의 적시타로 스코어 2-3이 됐다.

하지만 5회에 연속 안타와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내줘 점수차는 2-4로 벌어졌다.

7회 2사 3루 위기를 넘긴 KIA는 곧바로 1사 1,3루 득점 찬스에서 김선빈의 1타점 적시타로 다시 한점차로 추격했다. 그리고 8회 극적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최원준과 고종욱의 안타로 만든 2사

1,3루에서 서건창이 1타점 2루타를 때려 경기를 4-4 원점으로 돌려놨다. 이어 상대 투수 보크 실수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와 스코어 4-3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승기를 잡은 KIA는 9회 필승조 마무리 정해영이 LG의 거센 추격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 승리를 지켰다. 위닝시리즈를 확보한 KIA는 11일 크로우를 앞세워 시리즈웍에 도전한다.

한편, KIA가 이날 부상을 당한 선발투수 이의리와 유격수 박민의 1군 엔트리를 맡소했다.

선발투수로 나선 이의리는 2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자진해서 내려왔다. 유격수 박민도 6회에 파울플라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펜스와 강하게 충돌, 부상을 당해 응급차량에 실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KIA 관계자는 "이의리의 부상은 좌측 주관절굴곡근 염자로 파악되며, 박민의 부상 부위는 왼쪽 무릎 내측광근 부분 손상으로 3주 재활이 예상된다"며 "두 선수의 MRI 사진을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보낸 뒤 재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나성범과 황대인이 부상으로 빠진 KIA는 임기영과 박찬호에 이어 이의리와 박민까지 전력에서 이탈해 앞으로의 경기 일정에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주홍철 기자



KIA 서건창이 팀이 3대4로 뒤진 8회말 2사 1,3루에서 동점 적시타를 터뜨린 후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월드투어 등용문', 빛고을 코트 '별'들이 뜬다



임상모 광주시테니스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임원진, 광주·전남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난날 30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2024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2024 광주오픈챌린저 테니스 오는 14일 개막

권순우·홍성찬·맥스 퍼셀 등 30개국 200여명 참가 20일 국가대표 사인회·21일 '올망졸망 공유장터'도

광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볼 수 있는 국제테니스대회가 열린다.

2024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이하 광주오픈)가 오는 14-21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노린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광주오픈'은 월드 투어대회로 진급하기 위한 테니스 유망주들의 필수 등용문이다.

총상금 8만2천달러(US \$8만2000 + H) 규모인 이번 대회 단식 우승자에게는 75점의 랭킹 포인트와 1만1천2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복식 1위는 4천655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때문에 세계 랭킹 100-300위 사이의 선수들에게는 그랜드슬램 진입 및 투어 100위내로 진입에 도움이 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테니스 남자 국가대표인 홍성찬(ATP 단식 201위), 정운

성(ATP 단식 387위), 이재문(ATP 단식 508위), 남지성(ATP 단식 701위), 권순우(ATP 단식 645위), 송민규(ATP 복식 463위) 등 6명이 모두 출전한다.

해외 선수로는 이번 출전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맥스 퍼셀(호주·68위)과 덕워스 제임스(호주·109위), 버타넨 오토(핀란드·127위) 등 강자들이 방한해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대회 단식 결승에서 조던 톰슨(호주)에게 0-2(3-6, 2-6)로 저준 우승에 머문 맥스 퍼셀은 올해 우승에 재도전한다. 2019년 대회 단식 우승자인 제이슨 정(대만·256위)도 두 번째 우승컵을 노린다.

대회는 14-15일 남자 단식 예선전, 15-20일 남자 단식 본선전, 15-19일 남자 복식 본선전으로 진행된다. 단식은 49경기(예선 18, 본선 31)와 복식 15경기(본선 15) 등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복식 결승전은 20일 열리고, 단식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21



왼쪽부터 권순우, 정운성, 맥스 퍼셀 <부산오픈 조직위원회·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광주오픈기간 동안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를 동시 개최한다. 오는 20일 여성동호인대회, 21일 MZ세대를 위한 테린대회를 개최해 동호인들이 경기는 물론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주오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오픈 단식 준결승과 복식 결승전이 열리는 20일에는 권순우 등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사인회가 진행된다.

광주오픈 결승전이 열리는 21일은 광주공유센터와 '올망졸망 공유장터'

를 연다. '올망졸망 공유장터'는 페이스·핸드 페인팅, 예코백 체험, 물피리 만들기 등의 공유 체험부와 시민참여 물물교환 공유마켓, 공유놀이터 등으로 운영된다.

임상모 광주테니스협회장 직무대행은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광주오픈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회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스타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광주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 새역사 도전

황선홍호 결전지 도하입성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다.

황선홍호는 10일 오후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을 통해 카타르 땅을 밟았다.

오는 15일 개막하는 2024 AFC U-23 아시안컵에 나서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24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해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

림픽 본선 진출을 노린다. AFC U-23 아시안컵 1-3위 팀은 올림픽에 직행하고, 4위 팀은 아시안컵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황선홍호는 10일 오후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을 통해 카타르 땅을 밟았다.

황선홍호는 조별리그 B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일본과 8강 진출을 다툰다.

17일 0시30분 UAE와 1차전을 시작으로 19일 오후 10시 중국, 22일 오후 10시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경기 때 손흥민의 득점 장면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흥민 빌라戰 쉼기포...토틸넘 '3월의 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틸넘의 '캡틴'이자 해결사인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만 4번째로 구단 자체 선정 '이달의 골' 주인공이 됐다.

토틸넘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의 골 3월 수상자로 손흥민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토틸넘이 4-0으로 완승한 지난달 10일 애스턴 빌라와의 2023-2024 EPL 28라운드 원정 때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 터뜨린 팀의 세 번째 골이 구단 공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된 이달의 골 투표에서 64%의 지지

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오른쪽 측면에서 태안 콜루세브스키가 보낸 낮은 크로스를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바로 오른발로 때려 골 그물을 흔들었다.

당시 경기에서 손흥민은 득점포 외에 도움도 2개를 작성, 팀이 대승을 거두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시즌 EPL에서 15골을 넣어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이어 올해 3월까지 올 시즌에만 4차례 '이달의 골'을 차지했다. /연합뉴스